다양한 양육자 간의 협력

4편

다양한 양육자와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까?



교육부 대구광역시교육청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시기, 부모님의 걱정에 대해 잠시 들어볼까요?

양육자가 많으면 아이에게 오히려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가 헷갈리고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고요.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면**
아이가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걱정돼요.



그렇다면,

정말 양육자의 수가 많을수록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부모 외에도

기관, 교사처럼 다양한 어른들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러한 경험은

아이가 더 넓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여러 지식, 기술,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다양한 양육자와 함께하는 양육은 어떨까요?

다양한 양육자는 아이를 함께 돌보는 중요한 **양육 협력자**예요.

각자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아이에게는 모두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기대하고 있는 방식**을 나누고,
역할에 맞게 **협력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모 대신'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할 때,
다양한 양육자와의 협력은 아이에게 더 효과적이에요.

사례를 통해 이해를 더 해볼까요?

1. 역할에 대한 기대 조정하기



1. 역할에 대한 기대 조정하기



짧은 메모, 체크리스트 한 줄 기록...

양육을 맡긴다는 **생각 내려놓기**

역할은 **분명**하게, 기대는 **현실적**으로

간단한 **공유 방법** 사용하기

주목!

함께 아이를 돌보는 어른들은
아이의 일상 일부를 함께 책임지는 양육 협력자입니다.
'완벽한 대리인'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함께 실천하는 존재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작은 역할부터 나누고 가볍게 소통하세요.
간단한 공유가 **신뢰와 협력의 기반**이 됩니다.

2. 같은 양육 방식을 실천하기



2. 같은 양육 방식을 실천하기



기관의 방식을 **이해하기**

가정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실천해 보기

양육 방식에 대해 선생님과 **논의하기**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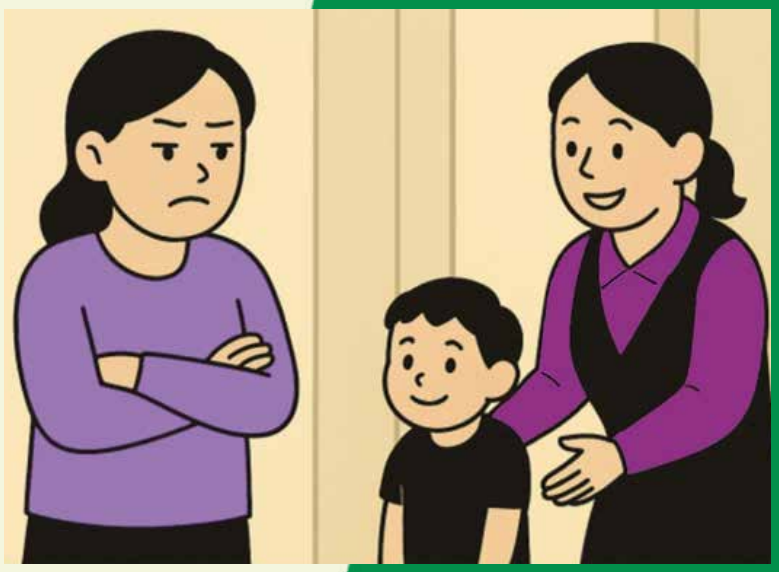
아이 앞에서 **조율된 방식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요즘은 가정과 기관이 소통하며,
같은 방향을 만들어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어요.
단순히 '다르다'고 넘기는 것이 아닌,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고 조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BALANCE GAME!

일관적인 기준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을 확인해 보세요!

A

우리 집에선 아이가 아직 어려서
놀잇감을 스스로 치우지 않아요.



**기관에서도 우리 집 기준을
따라줬으면 한다.**

V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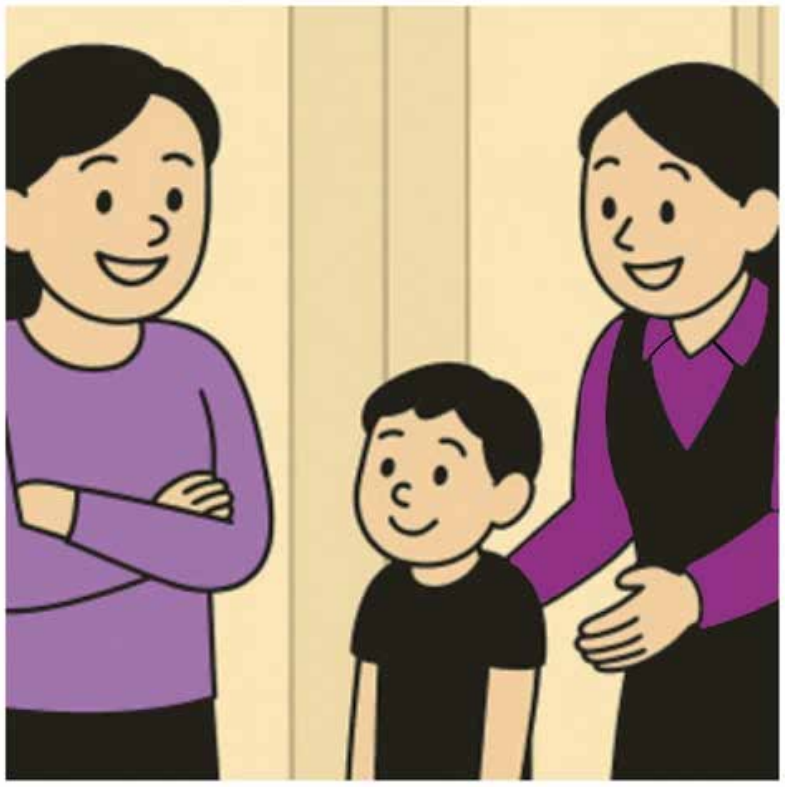
B

아이가 헷갈릴까 봐,
놀잇감에 관한 선생님 말씀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따르기로 했어요.

**우리 집 기준이 있더라도,
기관의 방식에 맞춰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밸런스 게임은 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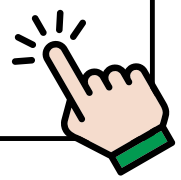
완벽하게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이의 하루는 집에서 시작되지만, 그 절반은 기관에서 흘러갑니다.
가정과 기관의 방식이 꼭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아이는 두 공간을 '**하나의 연결된 세상**'처럼 느껴요.
그래서 아이의 하루가 단절되지 않도록,
가정과 기관이 서로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기준이 아니라,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고
일관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이를 함께 키우는 어른들이 서로 연결되는 방법,
다음 편에서 함께 살펴보아요.




교육부

대구광역시교육청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